

인플루엔자 및 수두 등 유행성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인플루엔자 및 거울철 유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정보를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계절성 독감
- **임상증상** : 전신 증상 및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시작됨
 -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콧물, 코막힘 등의 호흡기 증상
 -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 될 수 있고 어린 소아에서 더 흔함
 - 중이염, 폐렴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고, 드물지만 심혈관, 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함
 -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 등에서 기저질환 악화와 합병증으로 사망도 가능함
- **잠복기** : 1~4일(평균 2일)
- **전염기간**
 - 대체로 증상발현 1일 전부터 발병 후 약 5일까지 전염력이 높음
 - 소아에서는 전염가능 기간이 더 길어 증상 시작 후 10일 이상까지도 전염력이 있을 수 있음
- **전파경로**
 - 호흡기(비말) 전파 : 주로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 통해 전파됨
 - 폐쇄 공간의 밀집 집단에서 공기감염도 가능하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후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는 경우 접촉 감염도 가능함
 - 동물에서의 인간감염은 흔하지 않으나 감염된 동물의 분비물에 직접·간접적 접촉으로 감염 가능
- **예방수칙**

-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산부, 50~64세 연령 등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며 기침 에티켓을 지킵니다.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유행성이하선염

질병정보

유행성이하선염은 공기매개에 의해서 또는 감염된 비말핵이나 타액과의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며, 전염력은 인플루엔자나 풍진과 비슷하나, 홍역이나 수두보다는 약함. 전염력은 증상 발현 3일 전부터 발현 4일까지이며, 바이러스는 이하선염 발생 7일 전부터 발생 9일까지 타액에서 분리됨

증상

- 잠복기 : 14~18일
- 약 20%가 증상이 없는 감염이며, 전구기(1~2일) 기간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등
- 발병 초기는 한쪽 귀밑샘(이하선)에서 시작하여 2~3일 후에는 양측 다 침범하나, 약 30%는 한쪽만 침범하고, 귀밑샘(이하선)침범 시 귀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부어오르고 두통과 입통을 동반

- **전파경로**: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나오는 비말이나 타액과의 직접 접촉으로 전파 (감염된 환자의 타액(침), 오염된 물건 등)

- **합병증**: 무균성 수막염 또는 뇌염, 사춘기 이후에는 고환염, 부고환염 또는 난소염, 췌장염 및 난창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심근염, 관절염, 신장염, 혈소판 감소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예방접종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 - 접종시기 : MMR 백신을 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접종
- 접종용량 및 방법 : 상완외측면에 0.5mL 피하주사

치료

-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음. 대다수의 환자가 자연 치유되므로 보존적인 치료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 투여함
- 저작 장애나 췌장염이 있을 때에는 식이조절, 정맥을 통한 영양 공급 등을 고려함 그 외에 뇌수막염 및 췌장염 등 합병증으로 구토 심할 경우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줌

예방방법

- 위생관리 철저 :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등 철저한 소독 필요
- 손씻기 생활화 및 개인위생 철저 •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지 않기(침으로 감염됨)
- 기침 및 상기도 감염이 의심되면 마스크 착용 필수
- 귀 밑이 부으면서 누를 때 아프면 지체없이 병원 진료 받기

수두

- 5~6월, 12월~1월에 발생이 높으며, 3~6세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높음.
- **전파경로** : 수두환자의 수포액과 직접접촉, 기침이나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
- **전염기간** : 발진이 나타나기 1~2일전부터 발진이 나타난 후 5일 정도까지
 - ※ 수포성 발진에 딱지가 생기고, 새로운 발진이 더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염력이 없다고 간주
 - 즉, 모든 수포성 발진에 딱지가 생기면 등교 가능함
- **임상증상** : 미열 등의 가벼운 전신증상이 있으면서 가려움증 동반한 수포성 발진
- **예방관리** : 발진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표준격리 및 비말격리

자료 출처

1. 질병관리본부 학교감염병 표본감시 2015년 39주 소식지 (게시 작성일 2015.10.2.) 참조
2.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 참조
3.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초·중·고, 특수학교용 상세본)



2019년 10월

호 남 제 일 고 등 학 교 장